

2025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

이름		희소/샘플러스 ID		핸드폰번호	
----	--	------------	--	-------	--

●응시정보

응시과목	미술	응시지역	경기	응시횟수	1회
임용시험 준비시기	EX) 대학원 5학기 및 졸업	합격 준비기간	11개월	시험준비 병행여부	EX) 학업과 병행

● 합격점수

1차 합격점수	교육학(교직논술) [18]점 / 전공(교육과정) [48]점
최종 합격점수	[154.610]점
가산점	[0]점 (가산점이 없을 경우 '0' 을 입력해 주세요.)

● 합격수기 작성

작성 예시를 참고,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 꼭 아래의 문항에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^^

1. 시기별 교직논술/교육학 학습방법

* 유아의 경우 교직논술 학습방법을, 중등의 경우 교육학 학습방법을 기입해주세요!

* 해당 월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.

1) 1~2월

1-2월 기본이론반 인강 수강

대학원 마지막 학기 병행 중이라 인강 밀리지 않고 듣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대학원 교직 과목을 임용에 기출이 되는 과목인 교육행정, 교육과정 등의 과목을 최대한 수강하려고 하였습니다! 대학원 교직 과목은 암기형이 아니라 좀 더 현장에서 심층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수업이기에 오픈형 추세인 요즘 임용교육학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2) 3~4월

3-4월 심화이론반 인강 수강

심화이론반 인강 또한 밀리지 않고 들었지만 따로 복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.

심화반을 수강할 때 최대한 기본 개념을 불러일으키며 개념이 익숙해지게 하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. 전공 공부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여야 하였기에 일주일에 하루만 투자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.

3) 5~6월

강의 x

강의를 듣지 않고 기본이론을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. 초수라 이 시기에도 교육학 인출이 되지 않아 많이 보고 익숙해지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주는 교육과정 다음주는 교육행정 등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서 혼자 일 회독 해볼 수 있게 계획을 세워 키워드를 찾으며 공부했습니다.

4) 7~8월

7-8월 영역별 모의고사반 인강 수강

전공이 급해지면서 교육학 공부도 점점 소홀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강을 신청하였지만 인강을 처음부터 쫓 듣기보다는 문제를 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찾아 들었습니다. 인강의 장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때 졸업 후 전공하기 바빠 교육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1-6월 이내 많이 끝내 놓으시고 그 뒤로는 계속 가볍게 회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! 7월부터는 전공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시기 같아요 이전까지 교육학을 제대로 안해놓으면 마음이 엄청 불안하답니다! (저는 항상 불안함을 안고 시험장까지 갔어요...)

5) 9~11월

9-11월 모의고사반 인강 수강

모의고사를 풀기 위해 수강하였고 인강을 듣지 않았습니다. 이 또한 문제를 프린트해서 풀고 확인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들었는데 이때는 답지만 봐도 이해가 되는 시기라 인강은 거의 수강 안했습니다! 모의고사만 봐도 될 것 같다면 다른 모의고사를 구매하셔서 풀어도 이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! 이때도 절대적으로 전공80% 교육학 20%로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하셔야 해요..!

2. 시기별 교육과정/전공 학습방법

1) 1~2월

위상팀/ 일반이론 인강 수강

학업 및 근로 병행

기본 이론강의를 밀리지 않고 나름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고 범위가 너무 많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.

2) 3~4월

위상팀/ 심화이론 인강 수강

학업 및 근로 병행

심화 강의는 이론과 함께 주요 기출이 수록되어 있어 어떻게 문제 출제되는지 몰랐던 저에게 아 임용 시험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강의였습니다. 물론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인강이지만 한번도 밀리지 않고 수강하였습니다.

3) 5~6월

위상팀/ 서술형 첨삭+기출분석반

학업 및 근로 병행

5,6월에 졸업 논문도 써야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윤진쌤의 필독서 강의를 듣고 싶었지만 서술형 첨삭 및 기출분석반만 들었습니다. 만약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지 않았다면 꼭 수강했을 것 같아요..! 이때부터 매일 공부하는 스케줄로 머리속에 큰 서랍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. 인출을 이때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저는,,, 인출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

4) 7~8월

위상팀/ 영역별 예상문제 첨삭 문제풀이반 + 최근16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

이때부터 이제 큰 범위가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. 인출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한달 주기로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.

5) 9~11월

위상팀/ 실전 첨삭 모의평가 + x파일 특강 현장 수강

9월부터 현장을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듣다가 현장 분위기를 느끼니깐 긴장감도 들고 오히려 지칠 당시 한번씩 현장을 들으면 그 날을 기점으로 다시 의욕이 생겨 공부하는데 좋았습니다. 그리고 각 선생님이 3분야로 나눠 설명해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셔서 효율적이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이때부터는 회독과 암기 인출을 계속해서 진행했으며, 회독주기를 9월 2주, 10월은 1주 시험 보기 전주부터 5, 3, 1 이렇게 줄여서 딱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.

3. 2차 시험 학습방법(면접, 수업실연, 실기 등)

1) 교직적성 심층면접

한마음에서 타교과와 스터디원 구성하여 시책 공부 등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. 1차 발표 후에는 실기를 많이 나가야 해서 그 뒤로는 미술 교과 1차 합격자 다른 대기실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정도 짝 스터디 진행했습니다.

2) 교수학습지도안/수업 실연

위상에서 짜준 공부 멤버들과 수업실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. 윤진쌤과 현직 교사쌤이 진행해주시는 피드백을 중점으로 중간 점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. 스터디원들이 다 같이 붙자 하는 마인드로 진행해서 아주 만족했고 3명 중 2명이 붙었습니다!

3) 전반적인 학습 방법이나 꿀 팁

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건 장기전이며 시험장 전까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4. 자신만의 공부방법(어려운 문제 대비법, 슬럼프 극복, 체력관리 등 수험생활 전반의 TIP)

임용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시험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계획을 크게 일 년 단위로 세우지만 계속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1,2달 주기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계획을 전면으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. 메타인지가 중요하겠죠..? 그리고 크게 정신적인 부분과 체력도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밥 먹고 산책 30분 하면서 재충전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렸어서 그 시간을 아까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 평소에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막판에는 산책하면서 2022개정 교육과정 인출 노래를 부르면서 걷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 너무 안 외워지는 단어 3개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나가서 그것만 외우면 성공이다 등 공부를 생활 속에 녹여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게 했던 것 같아요! 그리고 체력 아주 중요합니다.. 피곤하면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져요.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같이 두며 짝스터디를 활용하면 좋습니다! 같이 으샤으샤하면서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세요!

5. 합격에 도움이 된 선생님과 강의/교재 활용 후기는?

위상 모든 선생님의 강의를 좋았지만, 특히 윤진 선생님의 강의를 기억에 남습니다. 항상 설명을 해주실 때 맥락적인 설명을 함께 해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뭔가 막판에 큰 구조와 맥락을 잃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강의력이 좋고 선생님 또한 이 수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느껴져서 선생님도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오히려 선생님을 보면서 자극이 되었습니다. 장지연쌤의 수업은 항상 정갈하고 좋았지만, 마지막 시험 전주에 해주셨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시험 전주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기보다 합격을 위한 액땀처럼 생각하라는 말 덕분에 개인적으로 시험 전주에 힘든 일이 생겨 멘탈이 나갔뻔했지만,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정신 잡고 마지막 주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장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시험 전 11월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장쌤은 수업도 수업이지만 뭔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ㅎㅎ

위상 선생님은 답지에 매일 응원에 한마디 넣어주신거 저는 항상 읽었습니다~

모든 선생님 다 감사드립니다!!

6. 희소/쌤플러스 선생님(강사)께 감사의 편지 쓰기

학생들을 위해 수업 준비뿐 아니라 매일 한마디씩 학생들을 살피가며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힘든 임용이라는 공부에 계속해서 불을 지필 수가 있었습니다!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좋은 선생님이 오래 남아주셨으면 합니다! 저도 교단에서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!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

7. 합격에 도움이 된 희소 학원 서비스는?

많은 인원에도 모의고사의 피드백과 채점을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부하기 좋게 많은 자료를 주셔서 좋았습니다.

8.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

공부하다가 힘든 순간이 옵니다. 하지만 그럴 때 끝까지 놓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합격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모의고사 때 항상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왔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틀려서 기억에 남아 나는 시험장에서는 다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해오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일 년을 보냈습니다!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마 제일 잘 본 것 같네요!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! 교단에서 보아요 우리!!

* 해당 칸을 넘게 작성하셔도 무방하오니 자유롭게 작성 해 주세요~